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창립8주년 기념 간담회



남아프리카공화국 SABC TV 취재팀 2명 내회

### 바늘에 찔린 의료인 '에이즈 첫 감염' 제기

유전자 검사법을 통해 말기 에이즈 환자가 뒤늦게 발견된 가운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의료인 에이즈 감염인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울산의대 조영철 교수는 "최근 시술 시 여러 번 바늘에 찔린 적이 있는 의료인을 진단한 결과 에이즈 양성반응을 보였다"며 "하지만 이 의료인은 국립보건원 측의 공식 진단을 거부하고 있다"고 24일 말했다.

조 교수는 이 의료인이 의사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또 "현재는 본인이 에이즈검사를 거부할 경우 국립보건원에서 정식검사를 받게 할 수 있는 강제적 방법이 없다"며 "이 환자는 에이즈 감염사실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며 치료약도 복용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 8/24)

### 혈청 검사만한 에이즈 진단없다

혈청검사서 에이즈 음성(정상)판정을 받은 사람 3명이 말기 에이즈환자로 밝혀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에이즈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의학기술론 혈청검사를 대신할 수 있는 검사는 없다. 혈청검사의 정확도는 99.9% 이상. 이번 사태처럼 예외적 경우는 불가항력적일 수 있다.

유전자 검사는 혈청검사보다 좋은 방법이 아니다. 정상인을 감염인으로 오판하는 경우가 많고 20만원에 달하는 1회 검사비용과 2주 가량 걸리는 검사기간 등 단점이 많다. 따라서 혈청검사를 보완하는 검사로 활용하는 정

도가. 결론적으로 혈청검사 음성인 사람이 모두 유전자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의미다.

유전자 검사는 혈청검사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도 면역결핍 등 에이즈를 의심하는 증상이 계속 나타날 경우 등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제한적으로 받는 것이 원칙이다.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걱정이나 유전자 검사보다 건전한 성도덕의 확립과 에이즈 예방을 위한 정확한 상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중앙일보, 8/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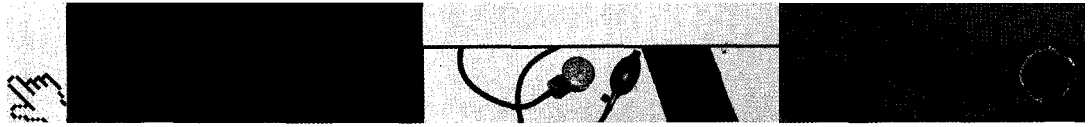
### 에이즈관리 담당자 워십

'효과적인 에이즈 관리 및 교육을 위한 워십' 이 약 90여명의 경기, 인천, 강원 지역 에이즈관리 실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10월 25~26일 양일간에 걸쳐 이천 미란다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원의 후원 하에 본회의 주최로 개최된 이번 워십에서는 '정부의 에이즈관리정책' (이종구, 국립보건원 방역과장), 에이즈의 최선 동향(김준명, 연세대 의대교수), 진단 및 검사전후 상담의 실제(성영란, 평진구 보건소 간호사)의 발표에 이어 에이즈관리 사례발표와 효과적인 에이즈관리 및 교육에 관한 그룹토의가 있었다.

### 강남구청 에이즈예방사업 적극 참여

강남구청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드물게 공익근무요원, 주차 단속원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에이즈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1년 9월 5~6일 513명의 공익근무요원을 대상으로 에이즈예방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9월 26일 124명의 공익근무요원과 32명의 주차단속요원을 대상으로 본회 에이즈예방교육 전문강사(민영홍, 강남보건의소 의약과)가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강남구 소재 중·고등학교, 복지관, 부녀회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에이즈예방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건원 관계자는 "미국에서도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 치료제 보급이후 노령층 에이즈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대 감염인 수도 증가하여 올해에만 6명이 보고되었다. 향후 이들 연령층을 대상으로 에이즈예방활동이 확대되고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SABC TV 취재팀 2명 내회

남아공의 유력 방송매체인 SABC TV(South Africa Broadcasting Company) 취재팀 2명이 10월 17일 본회를 방문하였다. 이 취재팀은 한국의 경제, 남북한 관계현황, 월드컵 준비상황 등을 취재하기 위해 7일간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으며 그 방한일정 중 하나로 한국의 에이즈예방정책에 대한 취재를 하기 위해 협회를 방문하였다. 한국의 에이즈관리 정책과 본회의 에이즈예방 활동을 남아공에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 본회 창립 8주년 기념 간담회

10월 9일 본회는 창립 8주년을 맞이하여 롯데호텔 피코크룸에서 창립기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기념 행사에는 정광모(한국소비자연맹회장)회장과 최강원(서울대 의대 교수), 박양실(전 보건복지부 장관)부회장을 위시하여 이연숙(한나라당 국회의원), 최영희(민주당 국회의원)이사를 포함한 다수의 임원들과 지부장들이 참석하였다.

### 노인층, 청소년 층 감염 급증

국립보건원 발표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말까지 에이즈감염자의 수가 235명으로 보고되어 지난 해 같은 기간 감염자 수인 164명에 비해 43.4% 증가하였다.

또한 60세 이상 노인층의 에이즈감염이 크게 늘어나 지난 해 말 39명에 비해 9월말까지 노인 감염인 수는 54%나 증가한 60명으로 보고되었다.

올해 신규노인 감염자 21명 중 13명은 성접촉으로 감염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부부감염자도 4쌍이나 있으며 최고령 감염인은 79세 노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립보

###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주요사업 실적 (1993. 10 - 2001. 10)

사업명	실적
중간교육지교육	대상 :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보건요원(42회 3,500명)
상담요원 및 자원봉사자 양성교육	대상 : 양호교사, 보건요원(6회 1,089명)
에이즈환자를 위한 호스피스교육	2000년 시작, 총 2회 272명
에이즈예방 집단교육 (1999-2001.10)	대상 : 중, 고, 대학생, 예비군, 민방위, 직장인 등 총 846회, 351,000명 전문강사연수회 : 총 96명
에이즈교육전문지 '레드러본' 발행	통권 42호 발행, 격월간, 총 126,000부
에이즈 관리를 위한 세미나, 워크숍	10회 개최, 참가인원 총 2,578명
조사연구사업	1. 건강관리자의 에이즈교육 효과에 대한 연구 2. 우리나라 약물중독자에서의 HIV감염 위험요인 연구 3. 매춘여성에서 HIV감염 위험요인의 폭포에 관한 연구 4. 에이즈에 대한 지식과 태도, 에이즈 예방교육의 효과 5. 한국의 향후 HIV감염 및 AIDS환자 발생의 예측 6. 청소년들은 에이즈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7. 남성 동성애자들의 생활환경과 의식구조 및 에이즈에 관한 인식정도에 대한 평가 연구(진행 중)
감염인 복지사업(치료보조금지원)	1999년 1억 확보, 총 73명, 6천 3백만원 지원
각종 에이즈교육 자료개발	각종 리플렛 및 소책자(664,000부) 비디오 : 에이즈 수첩 I(1,369), 에이즈 수첩 II(100부) 청소년용 레드러본(계정중) 슬라이드 : 교육용, 청소년용(170세트) 포스터 : 에이즈상담안내 패달 : 청소년 아동교육 자료(80장) 에이즈 상담원을 위한 전문상담교재(5,000부) 세계 에이즈 예방 포스터(140점)
전혀지동응답서비스(AFS)	18회선 운용, 총 1백만건 조회
HIV감염인, 환자를 위한 상담상담 운영	서울지역 1, 부산지역 1, 여성전용 1개소 총 2년인원 7,594명 수혜
에이즈상담	전화상담 : 총 12,913건 이메일상담 : 총 5,712건 내방상담 : 총 2,137건
홍배이지 방문, 시청각/동료교육	홍배이지 방문 : 총 305,997건 시청각 교육 : 총 243건 동료교육 : 총 10회, 385명

### 여러분의 후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 9-10월)

강연황	10,000	이귀옥	10,000
김남교	10,000	임향빈	20,000
김매자	10,000	함유식	20,000
김의식	100,000	부산광역시회	
김정은	10,000	박원주	200,000
윤인선	10,000	현정용	10,000
이계숙	20,000	<b>합계</b>	<b>914,500</b>